

## 사랑과 정의, 양립 가능한가 - 폴 리콰르 이론을 중심으로 -

이 경 래  
(경희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 관계로 보이는 이 두 명령은 양립 가능할까?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콰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스탕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허구적이거나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두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 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운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사랑과 정의,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폴 리콰르의 표현처럼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려 깊은 균형'에서 그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 사랑, 정의, 양립가능성, 폴 리콰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존 롤스, 스탄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

## 1. 들어가며 : 사랑과 정의, 왜 말하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던 촛불 집회가 열린 지도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촛불 집회를 바라보고 또 직접 참여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다름 아닌 ‘정의’라는 단어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양손에 균형을 뜻하는 천칭과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칼이 들려있는 것처럼, 정의 개념은 늘 엄중해서 차가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의 전통에서 정의 명령에는 늘 그 대적점에 사랑 명령이 함께 등장한다.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는 이 두 개념을 후대에 물려주면서 그들은 오늘날 서구 문화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정착했다. 사실 촛불 집회의 순간들을 되살려 볼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그에 대답하는 사랑 개념이 ‘온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끼어들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촛불 시민 혁명의 안과 밖에서 떠올랐던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고 좁혀질 수 없는 대적점에 놓여 있을 뿐인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에서는 엄중한 정의의 명령이 은폐되어야만 하는가? 아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잠시나마 사랑의 정을 유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물음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사랑과 정의는 양립 가능한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개념을 각각 정확하게 인식한 후 그 화해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개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규정하려 하면 너무도 막연하고 광범위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olas Wolterstorff의 지적대로, “정의와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글이 이 논쟁적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저자들은 어떤 종류의 정의와 어떤 종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한다고 보는 것인가?’”<sup>1)</sup> 두 개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그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퀴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을 통해 허구적이거나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볼 생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야 우리는 이 두 개념이 양립 가능한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러한 논의 전개 방향은 월터스토프와 폴 리퀴르Paul Ricœur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두 명령[사랑 명령과 정의 명령] 사이의 긴장을 불변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인식이 곧 두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려 한다. 두 명령이 서로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을 이해하는 길과 정의를 이해하는 길을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한다.”<sup>2)</sup>

“그래서 우리는 선의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상생활의 개인적, 사법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 균형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실천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sup>3)</sup>

1)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정의로운 사랑은 가능한가』, 홍종락 옮김, Ivp, 2011, p. 13.

2) 같은 책, p. 14.

3) Paul Ricœur, *Amour et justice*, Éditions Points, 2008, p. 42.

## II. 사랑과 정의,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과 정의 개념을 문학이나 철학, 신학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사실 사랑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종교는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의 자비, 기독교에서의 사랑 명령, 그리고 유교에서 인의예지에서의 인은 사랑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의도 각 종교에서 핵심적인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황금률의 법칙으로,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에서의 의를 통해 올바른 데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진리”의 다른 표현이면서도 정도(正道)<sup>4)</sup>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마다 사랑과 정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종교에서처럼 최고의 가치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 영역은 넓고 다층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서 이 두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자. 국어사전에는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sup>5)</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타자(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sup>6)</sup>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프랑스 로베르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좋다고 느껴지거나 인지된 것

4) 해봉스님은 “불교에서의 정의는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또 정도(正道)라고도 한다.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라며 “모든 생명체·사람에겐 불성이 있기에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진리의 삶이며, 정의의 길을 걷는 것”(한국종교연합 주최 평화포럼, 2017)이라고 밝혔다.

5)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6) 두산백과 참조.

에 대한 감정과 의지의 호의적인 태도”는 “자기와는 다른 사람(것)(신, 이웃, 인류, 조국)의 행복을 바라고 그에게 헌신하는 태도”<sup>7)</sup>로 나타난다.

그런데 ‘타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서의 사랑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로베르 사전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곧, 가족애, 형제애, 이성 간의 사랑, 부모자식 간의 사랑, 조국애, 이웃에 대한 사랑, 물욕, 취미에 대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등 무수히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서구의 고대 인문주의의 전통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사랑’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에로스(êros), 필리아(philia), 스트로게(stroge), 아가페(agapê) 등이 그것이다. 에로스<sup>8)</sup>는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 ‘열정’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서, 르네상스 상징주의에서는 아가페의 ‘천상의 사랑’과 구분해서 ‘지상의 사랑’으로 구분한다. 반면 필리아<sup>9)</sup>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나 우애를 말하며,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다함없는 사랑을 일컫는다. 또한 아가페<sup>10)</sup>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천상의 사랑

7) “Disposition favorable de l’affectivité et de la volonté à l’égard de ce qui est senti ou reconnu comme bon, diversifiée selon l’objet qui l’inspire. 1. Disposition à vouloir le bien d’un autre que soi (Dieu, le prochain, l’humanité, la patrie) et à se dévouer à lui.”(*Le Petit Robert 1, Le Robert, 1986, p. 61*)

8)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지만,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랑을 의미하는 말은 에로스였다. 플라톤에 의하면 에로스란 절대적 선(善)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차원 높은 충동적 생명력이다. 그러기 때문에 에로스는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애(仁愛), 또는 그리스 도교에서의 아가페나 필리오와는 구별되는, 가장 그리스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로이트에 의하면 에로스는 일종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어서 그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고 추진시키는 데 있다. 그것이 성(性)의 본능과 결부될 때는 리비도가 된다. 프랑스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amour’는 라틴어 ‘amor’에서 유래했는데, ‘amor’는 그리스어 ‘eros’의 라틴어 표현이다.

9) 필리아는 남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의 감정이며 역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러한 최선의 상태에서 상대방, 즉 친구는 ‘또 다른 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philos)에서 나온 말로, 오랜 시간의 사귄으로 인한 인격적 친밀성을 전제하며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무르익는 우정과 같은 사랑이다.

10)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는 신의 사랑이라는 뜻의 아가페가 있는데, 이는 기

을 가리킨다.

이러한 고전적인 구분을 윌터스토프가 세 가지 유형으로 색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바로 끌림의 사랑, 애착의 사랑, 그리고 자비의 사랑이 그것이다. 우선 끌림의 사랑은 곧 에로스다. 가치 있고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우리는 끌리게 마련이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 식물, 경치, 이상, 하나님 등 모든 대상일 수 있다. 이는 플라톤이 『향연』에서 염두에 두었던 사랑이며,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말할 때의 사랑이 이것이다. 반면 애착의 사랑에서는 끌림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끌림이 없어도, 대상의 가치나 탁월함이 없어도, 대상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수 있다. 내 친구, 내 아이, 내 집, 내 고양이에 대한 애착은 내 친구, 내 고양이가 다른 친구나 고양이보다 잘 생겨서가 아니라 단지 나와 줄곧 함께 한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그 애절한 눈빛의 내 고양이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이다. 분명 『어린 왕자』에서 장미와 별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 애착의 사랑일 수 있다. 우정은 끌림의 사랑에 애착의 사랑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애착의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우정은 자비의 사랑, 곧 아가페로 바뀐다. 대상의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애착에는 자비가 따른다. 그렇다고 자비에 애착과 끌림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이나 끌림이 없어도, 다시 말해 딱히 끌리지도 않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행복 자체를 위한 의무감에 따라, 타인의 행복감 자체를 높여 주려는 헌신적인 마음이 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아가페적 자비의 사랑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비교한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끌림의 에로스와 애착의 우정은 동요하기 쉬운 반면, 아가페적 자비의 사랑은 동요하지 않는 한결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 마디로 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끌림도 애착도 아닌 순수한 자비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사랑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정의 개념을 알아보자. 국어사전에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

독교가 도입되고 나서 만들어진 말이다. 에로스나 필리아와는 구별되는 신의 사랑을 이르는 말이다.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sup>11)</sup>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란 무얼 말하는가? 프랑스 로베르 사전에는 “각자의 권리와 재능의 공정한 평가, 인정 그리고 존중”<sup>12)</sup>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정의의 개념이 어떻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플라톤은 정의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가 주장한 ‘국가의 정의’란 지배자, 군인, 일반시민이 ‘각각의 업무’에 힘쓰고, 거기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실현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이는 개인 상호간의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적 정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저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셋째,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된다.<sup>13)</sup> 그 후 3세기 고대 로마의 법학자 율피아누스 Domitius Ulpianus는 정의(iustitia)를 일컬어 “각자에게 그의 이우스(ius, 몫)를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라고 했다.<sup>14)</sup> 곧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우스를 받는 사회는

1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2) “Juste appréciation, reconnaissance et respect des droits et du mérite de chacun.” (Le Petit Robert 1, Le Robert, 1986, p. 1057.)

13)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그에 의해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바대로 하는 미덕이고, 반면에 부정의란 그에 의해 누군가가 남의 재물을 취하고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수사학』, 1366b 9f.)이라고 규정한 이래, 흔히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표어는 정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몫을 나누는 분배적 정의, 잘못된 만큼 벌을 주는 교정적 정의, 그리고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교환적 정의가 그것이다.

14) 정의란 옳다는 뜻이면서 법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유스(jus)에서 나온 말로서 이는 법이 곧 정의라는 통치이념과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일반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의롭다는 것이며,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나 몫을 돌려주는 것, 곧 각자에게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근대에 있어서 정의에 관한 물음에 간단명료한 답을 내린 정치사상은 벤덤 Jeremy Bentham과 밀 John Stuart Mill 등의 공리주의자들에 의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이다. 그리고 이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철학자가 바로 존 롤스 John Bordley Rawls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제1 원칙 : 각자는 [...]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의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를 충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즉, (a) 그것은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한다. (b) 그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지위나 직위와 결부되어야 한다.”<sup>15)</sup>

제1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에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요컨대 롤스의 정치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결국에는 완전한 개인주의적 자유보다는 평등의 원칙을 수용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유가 더 정의롭다는 것이며, 경제적 평등 실현이 정치적 평등 실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롤스가 보기에 이러한 전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어도 합리적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시민들 사이에 우애 관계가 두터워야 한다는 점이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가 유지되려면 사회는 수준 높은 시민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애’의 원리가 충분히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미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우애와 같은 사랑의 개념이 필요함을 주

15) J. 롤스, 『사회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2001, p. 266.



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 Ⅲ. 사랑과 정의의 담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다소간 규격화된 개념 분석 자체가 아니라, 그 개념이 실제 담론 속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사랑 담론과 정의 담론의 분석을 시도한 이가 바로 해석학자 폴 리코르이다. 이제 두 개념은 언어의 문제로 탈바꿈한다. 개념 분석의 뼈대에 담화라는 살이 붙게 되는 셈이다.

리코르는 우선 개념 분석을 통한 평준화에 저항하는 담론의 형태들에 주목한다. “사랑은 말하지만, 정의와는 다른 종류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다.”<sup>17)</sup> 사랑의 담론부터 알아보자. 그는 사랑 담론에서 기이함이나 영똥함이라 지칭할 수 있는 특징들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먼저 사랑 담론은 송사(頌辭)이며 찬사이다. 인간은 다른 대상들보다 우위에 있는 대상을 목격하고서 기쁨을 느끼며 찬사를 보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쁨과 칭송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송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문학적 표현들(찬가, 축복의 담론, 환희의 송가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의 담론의 한 예로 시편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편 84:12) 리코르는 여기서 사랑 담론들은 시편처럼 시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러한 언어들은 일반 담론과는 달리 시적 특징들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념 분석의 일반 언어들이 일의적 성격을 지닌다면, 시적 언어에서는 의미가 확장되고, 예기치 않은 비유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랑 담론은 은유화(métaphorisation)의 힘을 보여준다. 이 은유의 힘 덕분에

16) 우리는 뒤에서 롤스의 이 원리에 대한 리코르의 생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리코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화해는 롤스의 정의의 제2 원리와 만난다.

17) Paul Ricœur, *Amour et justice*, Éditions Points, 2008, pp. 17-18.

사랑 담론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로 사랑 담론의 기이한 점은 ‘명령’의 형태를 띠는 점이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 리콰르는 이것이 “신과 고통한 영혼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명령을 보여주는 것”<sup>18)</sup>이라고 말한다. 모든 율법에 선행하는 명령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건네는 ‘나를 사랑하라!’하는 명령이다. 이러한 명령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사랑 명령이 자기 스스로를 맡기는 사랑 자체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사랑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면서도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사랑은 명령의 대상이자 주체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사랑 명령은 나를 사랑하도록 강제하면서도 명령 자체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령과 율법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리콰르는 명령의 시적 표현들(송가, 찬가, 축복의 담론 등)을 제안한다. 사랑 명령이 칸트의 정언 명령과 같은 도덕 명령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은 사랑 명령과 찬가의 노래 사이의 유사성 덕분이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럼 사랑의 담론과 아주 분명하게 대립하는 정의의 담론은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가? 리콰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사회적 실천 측면이다. 이는 법치국가를 특징짓는 사회의 ‘사법적 장치’와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의의 원리’ 측면이며, 이는 모든 제도에 적용되는 ‘공정함’이라는 술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정의 담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간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측면만을 언급한다.

정의를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정의의 상황, 정의의 경로 그리고 정의의 논증이 차례로 언급된다. 사법적 실천

18) *Ibid.*, p. 21.

19) 뒤에서 보겠지만 명령의 시적 표현과 도덕적 명령 사이의 이러한 차이로부터 리콰르의 변증법적 시도, 즉 ‘증여 경제’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시도가 시작될 것이다.

으로 이해되는 정의의 상황들은 사법적 실천이 의사소통적 활동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재판을 받을 경우,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게 마련이며, 그 양자의 대화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반대 논리를 주장하며 대립할 때 결국 소송이 진행된다. 정의의 경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법조문, 권리를 주장하는 법정, 공정한 선고를 내리는 판사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도 소통의 활동이 전제된다. 특히 정의의 논증은 사랑의 담론과 다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찬가를 예로 들자면, 사랑은 논증하지 않는다. 정의는 논증한다. 그것도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논의할 만한,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럴 듯하다고 추정된 찬성 논거나 반대 논거를 대립시키면서 논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의가 의사소통 활동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 모든 의미를 갖는다. 법정에서의 논거 간의 대립은 언어의 대화적 사용의 현저한 예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실천에는 그것의 윤리도 존재한다. 즉 ‘다른 편의 말을 들어보라(*audi alteram partem*)’이다.”<sup>20)</sup> 또한 정의의 담론은 무한히 반대 논리를 펴며 균형 잡힌 논증이 이루어지는 담론이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기도 하다. 판사의 선고문은 논증을 종료한다. 따라서 정의의 여신 디케의 한 손에는 균형 잡힌 천칭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다. 사법적 정의는 것처럼 끊임없는 논증의 연속이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리피르는 이렇게 정의의 첫 번째 형식을 사법적 실천의 특징들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의 담론은 사랑의 시적이고 은유적인 담론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산문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사랑과 정의,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이제 사랑과 정의의 개념이 소설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극단의 두 경우, 사랑과 정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작가 스탕달Stendhal과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이야기를 읽어

20) Paul Ricœur, *op. cit.*, p. 27.

볼까 한다.

“사랑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나 차라리 유일한 일이다.”<sup>21)</sup>라고 말한 스탕달, 『연애론』을 통해 연애심리를 분석한 19세기 낭만주의 작가 스탕달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나 소설세계를 통해 핵심적인 주제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을 통해 행복을 추구했던 행복사냥꾼(chasseur au bonheur)은 과연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스탕달, 곧 앙리 벨Henri Beyle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전적 글 『앙리 브뤼라르의 삶*Vie de Henry Brulard*』에서 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분노한’ 의식으로 가득 찼음을 토로한다. 그 분노는 다름 아닌 어린 아이의 개인적 권리를 무시하고 자유를 구속한 온갖 횡포에 대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가정, 교육, 종교, 사회, 정치의 횡포였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성인이 된 스탕달을 ‘정의’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법정’과 ‘소송사건’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특히 스탕달은 당시에 횡행했던 전제군주의 폭정에 대해 격한 분노를 드러낸다. 심지어는 루이 16세의 처형을 접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내 삶에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 [...] 국가적 정의가 집행된 이 위대한 행위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소설 독서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sup>22)</sup> 그에게 전제군주의 참수는 부정하고 불공정한 독재 권력에 대한 단죄이고 국민이 주권자이자 심판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정의의 행위’였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는 그의 소설세계에서 두 단계로 형상화된다. 우선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묘사된다.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에서는 왕정복고시대 말기의 귀족 정치인들과 부르주아들의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위선’의 사회가 그려진다. 『파르므의 수도원*La Chartreuse de Parme*』에서는 이탈리아 왕과 귀족들의 전횡과 부패가 그려지며 주인공은 심지어 이러한 계급에 속하며 의식 없이 그 특권을 누리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부정한 사회에 대한 반항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출세

21)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in *Œuvres intimes II*, p. 767.

22) *Ibid.*, p. 634.

를 지향하지만 결국에는 진리와 정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전파하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처럼 스탕달의 반항적 기질은 소설 속에 여러 반항아들(평민, 산적, 자유주의자, 안센파 사제들, 카르보나리 당원, 공화주의자)을 낳고 그들로 하여금 권리와 자유, 행복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도록 한다.

그의 단편소설 『바니나 바니니*Vanina Vanini*』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이 소설은 1829년 『르뷔 드 파리*Revue de Paris*』에 발표된 단편으로서, 작가 사후에 발행된 『이탈리아 연대기*Chroniques italiennes*』에 수록된 작품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1820년대 로마의 어느 봄날 저녁, 유명 은행가 B. 공작은 자신의 베네치아 광장의 새 저택에서 무도회를 개최한다. 검은 머리에 열정적인 눈빛을 지닌 공주 바니나 바니니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저녁 파티를 빛나게 하고 있다. 자정 무렵 무도회에는 하나의 소식이 퍼진다. 성채에 억류된 피에트로 미시릴리Pietro Missirilli라는 젊은 카르보나리 당원이 방금 탈옥했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소녀로 변장한 채 다름 아닌 공주의 아버지 집에 피신하게 된다. 바니나 바니니는 마침내 그를 보살피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급기야는 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주저 없이 그의 동료들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자수하여 투옥된 젊은 카르보나리 당원은 그녀가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녀를 거절하게 된다. 이 짧은 이야기는 이상주의적 혁명과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젊은 공주가 펼치는 비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떤 비극이 생겨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가치와 정의라는 또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비극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인은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연인의 동료들을 고발하는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 반면 이상주의적 혁명가는 여인을 진정 사랑하면서도 그보다 더 숭고한 가치인 정의를 위해 여인의 사랑을 거절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와 같은 두 가치의 충돌은 결국 더 우월하고 상위 가치로 통합되거나 승화되지 못한 채 참혹한 결말로 끝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스탕달은 왜 그런 양자택일의 선택만을 했을까? 비극적 사랑의 결말은 사랑의 실패로 점철되었던 작가 자신의 냉소적 사실주의 미학이 드러난 결과일까? 아님 당시 왕정복고시대 말

기에 혁명의 기운을 감지하며 찬과 반이 뚜렷이 구분되던 시대를 그리려 했던 것일까? 어쨌든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충돌하며 배타적 관계를 형상화한 문학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제 알베르 카뮈를 통해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자. 그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와 자비 문제를 놓고 카뮈와 프랑수아 모리악François Mauriac이 1944년 9월에서 1945년 1월까지 벌인 논쟁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친독 반역자들에 대한 “숙청 문제를 놓고 ‘신의 자비’를 외치는 모리악과 ‘인간의 정의’를 내세우는 카뮈가 벌인 논쟁은 20세기 프랑스 지성인사의 대표적인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sup>23)</sup> 모리악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독일의 게슈타포나 비쉬 경찰처럼 단지 기소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숙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4공화국은 게슈타포의 장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반역자들에 대한 용서가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카뮈는 불가능한 용서를 역설하며,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풀 때가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인간의 정의에 따라 반역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한다. 곧 인간의 정의와 신의 자비의 대충돌이었다. 카뮈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내가 숙청을 언급하며 정의를 외칠 때마다, 모리악 씨는 자비를 언급했다. 그런데 자비의 미덕이라는 게 참으로 특이해서, 정의를 주장하는 내가 마치 증오를 부추기는 듯이 보이게 한다. 모리악 씨의 말을 듣다 보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숙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의 증오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한편에서 터져 나오는 증오의 외침과 다른 편에서 들려오는 측은한 간청을 동시에 거부해야 하는 몇몇 사람들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증오의 외침과 측은한 간청 사이에서, 우리에게 치욕 없는 진실을 안겨 줄 정의로운 목소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카뮈가 말하는 숙청은 자비나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편에 서느냐 정

23) 이기언, 『지성인 알베르 카뮈.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울력, 2015, pp. 169-170.

24) *Ibid.*, pp. 184-185 재인용.

의의 편에 서느냐의 문제였고, 그래서 프랑스 미래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 카뮈는 그래서 반역자도 사랑할 줄 아는 모리악의 인간적인 면은 존중하지만,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제시한 모리악을 시민으로서 개탄한 것이다. 카뮈는 인간의 정의를 좌절시키려는 신의 자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러한 거부는 마치 교화신부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는 『이방인 *L'Étranger*』의 주인공 뫼르소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논쟁이 끝나고 8개월이 흐른 1945년 8월 30일, 카뮈는 복수심과 경박함으로 점철된 프랑스에서의 숙청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곧 그는 증오와 악의 가운데서 진정한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밝히며 모리악의 입장이 옳았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와 신의 언어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유용함을 피력하며 사랑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 과연 실제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었을까? 『정의의 사람들 *Les Justes*』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 작품은 1949년 12월 초연되었던 5막으로 구성된 희곡 작품으로, 1905년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혁명 사건을 토대로 구성한 작품이다. 러시아 황제의 숙부인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한 모스크바의 사회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서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대공의 줄거리는 이렇다. 막이 열리면 다섯 명의 테러리스트가 한데 모여 암살에 대한 모의로 시작된다. 치밀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추어 세르게이 대공의 마차가 지나갈 때 폭탄을 던지기로 하지만, 그 역할을 맡은 카리아에브는 대공의 어린 조카들이 마차 안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결행하지 못한다. 스테판은 이 실패를 두고 화가 난다. 그들은 이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후 카리아에브는 대공을 결국 암살하고 체포되며 감옥에 투옥된다. 투옥된 그에게 대공비가 찾아와 모의를 자백하고 동료들을 고발하기를 바라지만 그는 이를 거부한다. 그가 보기에 대공 세르게이의 암살은 정의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을 배신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며 처형된다. 그를 사랑한 도라도 테러행위에 가담하며 전제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여기서도 서로 대립하는 두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시인 카리아에브이고 다른 하나는 과격당원 스테판 페도로브이다. 전자는 비록 정의를 위해 테러를 감행하지만 자신과 평범한 인간들의 삶을 사랑한다. 그가 혁명에 가담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공의 조카라 하더라도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해칠 수 없는, 시와 도라를 사랑하는 따뜻한 시인이다. 반면 스테판은 ‘정의’만을 사랑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선량한 인민들도 죽일 수 있다고 공언한다. 왜냐하면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면 제정 러시아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리아에브의 지적처럼, 그에게는 혁명가들이 타도하고 싶었던 ‘전체주의의 냄새’가 풍긴다. 카뮈는 이 희곡을 스탈린 체제의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썼으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정의’와 제정 러시아에 대한 증오에 기초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모리야과의 논쟁에서 보여주었듯, 사랑이 결여된 정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V. 나가며 : 사랑과 정의, 양립 가능한가?

앞의 두 소설은 각각 사랑과 정의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소설 도스토예프스키 Dostoevskii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읽어보자. 이 소설은 부친 살해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룬 가족소설로서, ‘만인은 만인에 대해 죄를 범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관념에서 출발하여, 그 죄악을 벌해가는 ‘정의’의 명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의의 명령은 벤담식의 공리주의적 정의론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아들 이반이 셋째 알료샤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은 이를 잘 증명한다.

“자 어디 솔직히 대답해 봐! [...] 너에게 그런 답을 물려받은 세상 사람들이 이 조그만 희생자의 보상할 길 없는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여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념을 너는 용납할 수 있겠니?”<sup>25)</sup>

25)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 I』, 김학수 옮김, 하서, p. 386.



이러한 이반의 물음에는 소수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탑에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박애주의가 깔려 있다. 곧 여기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과는 달리, 모든 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작가의 정의관과 관련하여, 이 물음이 던져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대심문관’이라는 부제가 달린 대목으로 이반이 알료샤에게 들려준 자작의 극시가 소개되며 작품의 중심주제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대심문관’이라는 극시는 허무적인 무신론자 이반의 지적 사유가 낳은 결과물이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연일 종교재판이 열렸던 16세기의 스페인에 재림한 그리스도와 아흔 살의 대심문관이 벌이는 숙명적인 대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심문관의 기나긴 독백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가 대심문관에게로 다가가 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는 장면이다. 다시 말해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논증의 언어 대신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 입맞춤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작가가 꿈꾼 진정한 화해가 논리 대 논리의 투쟁이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과 이해에 있음을 알린 것이다. 이는 또한 형의 죄와 그로 인한 벌에 대한 동생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설정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엿보게 하며,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화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작가는 소설 속에서 불완전한 정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마치 소설가 자신이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연민’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소하려 했던 것처럼, 이 소설에서 그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연민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겠다.<sup>26)</sup>

26)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이나 소설 창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고통이었다. 빈곤, 질병, 죽음이라는 고통이 인간 보편의 조건이며 인간에 관한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작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이 대문호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관념이자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인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연민(compassion)’은 그의 윤리적 덕목의 맨 앞에 위치한다. 그에게 있어서 연민은 가장 중요하고, 어찌면 인간 실존의 유일한 법칙이다. 연민은 ‘함께(com)’와 ‘고통(passion)’을 조합한 낱말로써, 말 그대로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

이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다시 리코르로 돌아와 보자. 그는 사랑과 정의 간의 변증법적 사유를 여전히 해석학의 연장선에서 이어가며, 그 화해의 가능성을 성서 ‘담론’에서 찾고 있다. 다른 아닌 두 개의 명령이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두 구절이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6,27-28)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6,31)

하나는 사랑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의 규칙을 알리는 황금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 명령은 단순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게 모욕과 저주를 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이는 일 반 윤리를 초월하는 넘침의 논리, 곧 증여(don)의 경제에 속한다. “원수 사랑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이웃 사랑은 인간-피조물의 의존관계의 초윤리적 감정 속에서 증여 경제와의 최초의 관계를 발견한다.”<sup>27)</sup> 반면, 뒤이어 언급되는 황금률은 기독교의 기본 윤리로서 등가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상의 윤리를 지배하는 논리는 바로 이 등가의 논리이며 호혜성의 원리이다. 곧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를 통해 정의의 규칙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황금률은 적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명령으로 인해 부인되

---

교적인 사랑을 통해 인간들의 공존과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 왜 러시아 소설가는 이러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의를 넘어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카라마조프적인 것’을 뜻하는 ‘카라마조프쉬나(Karamazovshchina)’라는 개념이 있다. 일차적으로, 카라마조프 집안의 특성들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곧 세기말을 맞이하게 될 러시아 사회의 목시록적인 혼돈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친 살해 행위는 곧 정치적 혁명, 나아가 형이상학적이며 종교적 반항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부친 살해에 맞서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제시한 해법은 다른 아닌 슬라브식 메시아주의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러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광기에 가까운 메시아주의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주된 화두였다. 그의 작품 속에는 그래서 인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욕망이 만연해 있다.

27) Paul Ricœur, *op. cit.*, p. 34.

는 것은 아닌가? 등가의 논리가 적용되는 황금률과 넘침의 논리가 작동하는 원수사랑 명령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건 아닌가? 이처럼 대답하는 두 논리를 인접해서 동일한 문맥 안에서 언급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리콰르는 두 담론의 인접성을 이렇게 해석한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사랑 명령은 황금률을 폐지하지 않고 그것을 관대함의 의미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랑 명령의 통로로 만든다. 사랑 명령은 윤리를 초월하는 지위 때문에 역설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서만 윤리적 영역에 다가간다.”<sup>28)</sup> 다시 말해 사랑 명령은 관대함의 의미에서 황금률을 재해석하면서도, 윤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윤리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황금률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도덕 초월이 비도덕이나 부도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황금률로 요약되고 정의의 규칙으로 형식화된 도덕성의 원칙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정의가 사랑의 윤리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매개라면, 사랑은 ‘관대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매개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대한 정의’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존 롤스가 밝힌 정의의 제2원리를 리콰르가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살펴 봐야 한다. “롤스의 정의의 제2원리를 미묘한 공리주의로 전락하는 것에서 구제하는 것은 결국 그것과 사랑 명령의 은밀한 유사성이다. (...) 정의의 제2원리와 사랑 명령의 이러한 유사성은 결국 그 유명한 ‘사려 깊은 균형 *équilibre réfléchi*’의 전제들 중의 하나이다.”<sup>29)</sup> 리콰르는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리가 적용되는 차등의 원칙에서 다름 아닌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연대의식의 가능성을, 곧 ‘관대한 정의’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사실 정의가 이러한 사랑 명령에 의해 은밀하게나마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칫 소수를 배려하지 못하는 공리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정의가 사랑을 실현시킨다면, 사랑은 정의를 지켜준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리콰르는 이렇게 사랑과 정의의 양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는 철학과 신학의 틀 속에서, 불안정한 화해를 표현한 ‘사려 깊은

28) *Ibid.*, p. 38.

29) *Ibid.*, pp. 40-41.

균형'을 통해 넘침의 논리와 등가의 논리가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것도 다만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만 균형을 이루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일상생활의 개인적, 사법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 균형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실천가능하다'고 말한다.

“나는 형법과 사회적 정의의 규칙 등의 모든 법규 안에 연민과 관대함이라는 보완 요소가 끝내 단계적으로 삽입되는 것은 설사 어렵고 끝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합리적인 임무가 된다고 말하겠다.”<sup>30)</sup>

이제 우리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모두(冒頭)에서 사랑과 정의에 관한 상호적 논의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두 개념에 대한 개념적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랑과 정의 사이의 긴장은 충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부정적인 결합의 예들을 일부 살펴보았지만,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 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온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양자는 어떤 지점에서 양립 가능할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어떤 종류의 정의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의 경우, 롤스의 제2 원리, 즉 차등의 원칙에서 사랑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공정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구성원의 배려와 연대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에서

30) *Ibid.*, p. 42.

사랑의 개입이 요청된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랑인가? 종교적 성격이 강한 아가페적 사랑은 쉽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일 것이다. 이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우정을 뜻하며 형제애, 조국애를 포괄하는 필리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월터스토프의 끌림과 애착이 포함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의 ‘정’과 아주 흡사한 필리아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리콰르가 말하는 ‘사려 깊은 균형’은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판단은 다분히 그러한 우애의 정신,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이상적인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양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정의를 구현시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이념이 서로 충돌할 때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형제애나 박애라는 사랑의 개념을 통해 연대의식을 발휘하며 해법을 찾는 모습에서 그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정의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전제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이 갈등을 보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나는 조화를 보여주려 한다.”<sup>31)</sup>고 말한 월터스코트의 포도원의 비유<sup>32)</sup>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31)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Ivp, p. 18.

32) 이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이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낱품팔이 일꾼들을 고용하며 통상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세 시에도 다른 일꾼들을, 여섯 시, 아홉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한 시에도 한 무리의 일꾼을 고용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그는 관리인에게 가장 나중에 고용된 일꾼부터 시작해 모든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라고 지시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이 통상 하루치 품삯을 받아서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급료를 받을 거라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급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앞에 온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주인은 그저 자신은 관대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할 뿐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 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가? 정의롭지 못한 사랑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님 사랑이 결여된 정의로 인한 냉엄한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가? 연민이나 관대함이 스며있는 건강한 연대의식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양립 가능한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본다.

---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태복음 20,13-16) 이처럼 선별적 관대함은 그 선택에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정의로울 수 있다. 사실 노동의 길이와 강도에 관대함의 크기를 맞추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품삯을 약속대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포도원 비유는 정의와 관대함이 융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ABEL, O., PORÉE, J., *Le vocabulaire de Paul Ricoeur*, Paris, Ellipses, 2009.
- CAMUS, Albert, *Les justes*, Gallimard, 1950.
- Dictionnaire Le Petit Robert 1*, Le Robert, 1986.
- RICCEUR, Paul, *Amour et justice*, Éditions Points, 2008.
- \_\_\_\_\_,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Paris, Seuil, 2000.
- \_\_\_\_\_, *Lecture 3. Aux Frontiere de la philosophie*, Paris, Seuil, 1994.
- \_\_\_\_\_, *Parcours de la reconnaissance*, Paris, Gallimard, 2004.
-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in *Œuvres intimes II*, Gallimard, 1955.
- 고지문, 『사랑 자유 정의 : 최근 미국소설의 주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88.
- 김일수 외, 『한국사회 정의 바로세우기』, 세창미디어, 2015.
- 김혜령, 「폴 리코어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현대유럽철학연구』, 39집, 2015.
-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정의로운 사랑은 가능한가』, 홍종락 옮김, Ivp, 2011.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 I』, 김학수 옮김, 하서.
- 마르셀 모스, 『증여론』, 이상률 옮김, 한길사, 2002.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명철 옮김, 와이즈베리, 2014.
- 변경원, 「사랑과 정의의 긴장관계를 통한 기독교 윤리의 자리」, 『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33집, 2015.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5.
- 에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와 다르게』, 김연숙 외 옮김, 인간사랑, 2010.
- 염동팔,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P. 틸리히, E. 브루너, R. 니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2006.
- 위르겐 몰트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김균진 옮김,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이기연, 『지성인 알베르 카뮈.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울력, 2015.
- 임성균, 「정의와 사랑 : Hamlet의 문제」, *Shakespeare review*,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8집, 1996.
- 임혁재, 「사랑의 원리로서의 정의」,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19집, 2006.
- 팀 켈러, 『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옮김, 두란노, 2012.
- 폴 틸리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성신형 옮김, 한들출판사, 2017.
- 존 롤스, 『사회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2001.



❖ ABSTRACT

Love and Justice are Compatible ?  
– In Theory of Paul Ricœur

Lee, Kyung-lae

In the moral culture of the West, love and justice are two commands with roots in ancient times. One is the heritage of Hebraism, and the other belongs to the tradition of Hebraism and Hellenism. The two concepts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required for preserving stability in society. These two commands are compatible, in an exclusive relationship to each other. To ultimately seek their reconciliation, the precise concept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each of them should be premised on, due to the multi-layered meaning of implications of the two concepts. To this end, we first have started with a lexical meaning and have done a conceptual analysis of what these two concepts are expressing. We have looked at Paul Ricoeur in his interpretation of the discourse of love and justice. Finally, we looked at how these two concepts are narrated in literature. Through the literary works of Stendal, Albert Camus, and Dostoevsky, we have seen examples of literary configurations that have been embodied in life.

In this way, through conceptual analysis, discourse analysis, and narrative analysis of the two concep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Love and justice were not a matter of choice. We could see coldness and unrealism of a society lacking love or with a problem of unclean love, through Stendhal's and Albert Camus' novels and their actual debate. In addition, in unclean paternalism, risk of the power of love blocking certain a certain touch of justice was also confirmed. So, it was necessary for a healthy future societ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coexistence of love and justice.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compatibility in a 'considerate

balance' wherein the 'moral judgment in situation' is required, as Paul Ricœur expressed. This ideal situation may be realized when forms of love involving solidarity, mutual care, and compassion with pain like Dostoevsky are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al justice. When Albert Camus pursued justice and eventually faced reality and mentioned the need for mercy, he could have made a moral judgment based on this situation. In the end, love protects justice, and justice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love. Justice reduces super-ethical love to moral categories, and love plays a role in enabling justice to exert its full force.

Key Words : Love, Justice, Compatibility, Paul Ricœur, Nicolas Wolterstorff, John Rawls, Stendhal, Albert Camus, Dostoevskii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